손절사회, 자비로 잇다
지구촌은 세계일화

후원 100억원 돌파 ‘보건’ 국제 자비행 본격화

나누며하나되기

‘가장 소외된 이웃’ 이주민 등 지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치 구현


나누며하나되기가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시엠립 재캄한인회 사무실에서 주민과 교민 약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료 모습.

천태종이 설립한 NGO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보광 스님)는 국내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이주민·재외동포·해외 재난지역 지원 등 다양한 국제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국내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 물품 규모만 약 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연대와 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기치로 내건 나누며하나되기의 활동은 무엇보다 ‘가장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고려인 동포, 난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 안전망 밖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생활·문화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더욱 적극적인 국제연대 활동에 나섰다.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에게 마스크와 생필품, 방역물품을 지원했고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을 위해 생활 안내와 상담 지원까지 병행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주민 지원 활동은 나누며하나되기의 대표적인 실천 분야 중 하나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은 한국사회 안에서 가장 쉽게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이들이다. 나누며하나되기는 이들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바라본다. 이에 따라 문화체험과 전통문화 나눔, 김장 지원, 의료봉사, 긴급 생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과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다. 물질 지원을 넘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나누며하나되기는 최근 해외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으로 활동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4월 21~22일 캄보디아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지역 주민과 교민 약 400명을 대상으로 진료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행복나눔 전달식’도 함께 진행하며 5000만원 상당의 의료물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했다. 나누며하나되기는 이번 의료봉사를 계기로 국제구호와 보건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불교계 자비 나눔의 가치를 해외 곳곳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창호 사무처장은 “지금 사회는 점점 타인을 밀어내고 혐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불교는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친다”며 “이주민과 재외동포, 해외 취약지역 주민들을 돕는 일 역시 결국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재난 현장서 ‘자비의 연결’ 실천

더프라미스

‘마음 지킴’ 주목해 정신건강 지원
미얀마 긴급구호·스리랑카 교육


팔레스타인 심리사회적지원 기관 SAWA는 더프라미스와 협력해 24시간 원격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혐오와 단절, 무관심이 일상이 된 시대. 세계 곳곳의 전쟁과 재난이 인간의 삶을 더욱 극단으로 내몰고 있다. 시대적 고통 속에서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는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주목하고 있다. 상처 입은 공동체의 회복과 연결을 돕는 활동이다.

최근 더프라미스는 팔레스타인 현지 심리사회적지원 기관 SAWA와 함께 ‘팔레스타인 인도적 위기 정신건강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가자지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전역 주민들에게 24시간 원격 심리상담 체계를 제공하며 전쟁 트라우마 치유와 마음 돌봄 활동을 이어갔다.

현지에서 상담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다. 더프라미스는 “상담은 주민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됐다”고 전했다. 병원도 쉼터도 무너진 전쟁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됐다.

특히 더프라미스는 피해 주민뿐 아니라 상담사들의 마음까지 돌봤다. 상담사들을 위한 스태프케어(Staff Care) 프로그램과 치유 공간 조성 활동도 함께 진행하자 참여 상담사들은 “상담을 지속할 힘을 다시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멀리 한국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찾아와 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로였다”고 전했다.

더프라미스의 활동은 전쟁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 3월 미얀마 강진 직후 묘장 스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긴급구호팀을 꾸려 만달레이와 사가잉, 인레 지역을 찾아 쌀과 식용유, 식수, 여성용품, 모기장 등을 지원했다. 이후 우기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공동체 회복 중심의 2차 지원 활동도 이어갔다. 학교 화장실 건축과 물탱크 설치, 재건축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이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특히 더프라미스는 피해 지역 사찰의 복구에도 나섰다. 현지에서 사찰은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의지하는 공동체 공간이기 때문이다. 재난 이후 공동체가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스리랑카 차밭 산골마을에서도 더프라미스의 자비행은 이어지고 있다. 사이클론 피해로 지반이 갈라지고 벽면이 무너져가는 ‘발라라미티 유치원’은 마을 아이들의 유일한 교육 공간이다. 더프라미스는 조계종과 함께 지반 안정화와 건물 보수,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쟁과 재난의 현장에서 더프라미스는 전하는 메시지도 결국 하나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임은호 기자

연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로터스월드

2004년 설립, 교육·복지 사업
아동센터 운영·직업훈련 지원
2007년부터 4만여 명 안과 치료
“자비 넘어 지속 가능한 연대 실천”


캄보디아 로터스희망미용센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

국제구호 및 지역개발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2004년 법인 설립 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라오스, 미얀마 등지에서 교육·복지·보건·지역개발 사업을 펼쳐온 불교계 대표 국제구호단체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사장 성관 스님의 신념 아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이어오다 2014년 유엔 국제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특별협의지위 NGO로 선정되며 국제사회로부터 공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로터스월드의 활동은 해외 원조를 넘어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삶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자립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4년 캄보디아 정부와 업무협정을 체결한 로터스월드는 정부로부터 앙코르와트 유적 인근 4만㎡(1만2000여 평) 규모의 부지를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2년 뒤인 2006년, 아이들 100여 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로터스월드 BWC 아동센터’를 개원하며 본격적인 현지 지원 사업의 문을 열었다.

아동센터는 단순 교육시설이 아니다.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에게 교육의 문을 열어주고, 방과 후 돌봄과 기초생활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로터스월드는 아이들이 빈곤의 악순환 속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로터스희망미용센터’다. 이곳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미용 기술교육과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있다. 생계 지원을 넘어 스스로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의료 지원 역시 로터스월드 활동의 중요한 축이다. 캄보디아 주민들은 강한 자외선과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인해 백내장, 익상편 등 안과 질환 발병률이 높다. 하지만 부족한 의료 인프라와 어려운 경제 여건 탓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소독과 약물치료,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는 질환조차 방치돼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거나 안구적출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로터스월드는 2007년 BWC센터 내에 진료소를 마련했고, 김안과병원이 2억원 상당의 수술장비와 검진기기를 지원하며 본격적인 의료봉사가 시작됐다. 특히 2016년부터는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반영해 백내장 수술뿐 아니라 의안 시술까지 도입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약 4만3000여 명을 진료했고 백내장 등 안과 수술만 3000여 건을 진행했다. 안구 적출 후 안면 윤곽 변형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은 의안 시술을 통해 외형 복원을 넘어 다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의료봉사가 긴급 구호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활동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로터스월드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불교 정신을 국제사회 속에서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나누기보다 서로 연결된 존재로 바라보며 자비와 연대의 가치를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로터스월드의 활동은 불교계 구호단체를 넘어 세계 시민사회 속 연대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가장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리에서 희망의 꽃을 피워내는 일. 그것이 바로 로터스월드가 지향하는 불교적 국제연대의 모습이다. 임은호 기자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울산 백양사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이사장
백양사 주지
묵암 지선 합장

사부대중 일동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현재
데이비드 호크니의 미디어아트 상영 중


함월산 백양사.

홈페이지 http://www.bysa.or.kr
YouTube 울산 백양사 검색
Ch 카톡에서 울산 백양사 채널 추가하세요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67 / 052-243-8712 / 245-8712

백양사 유튜브 YOUTUBE 울산 백양사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